

광주 평균 아파트값 3억2237만원…1년새 5000만원 ↑

광산구 올들어 10.79% 올라 1위
전셋값도 고공행진 2억2273만원
매물 감소 집값 상승 이어질 듯

광주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새 5000만원 상당 오르면서 3억원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매물은 감소하고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맞물리면서 한동안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9월 광주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억2237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억9549만원) 대비 9개월 만에 2688만원 증가했으며, 1년 전인 지난해 9월

(2억7267만원)과 비교해서는 4970만원이 올랐다. 광주의 집값이 불과 1년 만에 5000만원 오른 셈이다.

앞서 광주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 2월(3억244만원) 처음으로 3억원을 돌파한 뒤 매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광주 5개 자치구 중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산구였다. 광산구는 지난해 말 대비 10.79% 올랐다. 이어 북구가 9.23%, 남구 8.07%, 서구 7.28%, 동구 3.34% 순이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보면 광산구는 1년 새 15.01%나 올랐고, 북구와 남구도 각각 10.91%, 10.40%로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는 8.13%, 동구는 3.94%로 나타났다.

매매가뿐 아니라 전셋값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값 오름세에 '내집마련'에 어려움이 가

중되는 상황에서 전세값마저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광주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2273만원을 기록했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 1억9399만원에 비해 14.82%(2874만원)가 증가한 것으로, 3000만원 가까이 전셋값이 오른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장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 대선 이슈가 부각되면 개발 호재 발표와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데다, 광주는 도시철도 2호선 개발 등 호재가 남아 당장 세금을 피하기보다 오히려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집을 팔기보다 증여를 택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매물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집 장만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지역 집값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광주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현재 1748건으로, 불과 한 달(1925건)만에 9.2% 감소했고, 3개월 전(2491건)에 비해서는 무려 30%나 급감했다.

광주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이 계속 오르기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매물은 부족한 상황이 맞물리고 있다"며 "집 거래 성수기인 올 하반기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층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가격 상승장이 꺾이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디지털 금융 가속 자체 모바일인증서 적용 3배 빠른 개인뱅킹 출시

디지털 금융 강화를 내건 광주은행 이자채 모바일인증서를 만들고 처리 속도가 최대 3배 빠른 개인뱅킹(사친)을 내놓았다.

광주은행은 7일부터 개인뱅킹 앱을 전면 개편해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KJ모바일인증서'를 새롭게 적용한 점이 눈에 띈다.



광주은행 자체 인증서는 인증 비밀번호 6자리와 잠금 해제 유형(패턴) 또는 지문인증(페이스 ID)을 결합해 사용할 수 있다.

로그인, 거래 때 인증 방법을 다르게 설정해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이제 거래 인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이에 따라 'KJ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하는 고객은 하루 최대 1000만원까지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입력 없이 인증 비밀번호 6자리만으로 빠르게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앱 실행 속도는 기존보다 2~3배 빨라져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개편된 개인뱅킹 앱은 고객 유형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오픈뱅킹을 이용할 때는 다른 은행 계좌를 첫 화면에 설정할 수 있다.

디자인에 감금함을 더했으며, 취향에 맞게 글씨 유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편의성을 높인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은 국가품질인증기관 웹와 치료부터 '앱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송중웅 은행장은 "가속화되는 금융의 디지털시대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 중심의 스마트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주은행 개인뱅킹의 전면개편을 야심차게 준비했다"며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등 치열해진 경쟁환경 속에서 지역 향토은행으로서의 지역 금융 발전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가도록써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제네시스 부산국제영화제 후원 제네시스 브랜드는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에 GV60과 G80 전동화 모델 등 80여대를 의전 차량으로 제공하는 등 공식 후원하기로 했다. 이날 부산 영화의 전당 두레마루 광장에 조성된 '제네시스 브랜드 존' 모습. <현대차 제공>

형다 이어 채권 미상환 중 부동산 개발사 또 나와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 형다(恒大·에버그란데)가 채권 이자 미지급 등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린 데 이어 또 다른 부동산 개발사도 만기 도래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중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미 CNBC 방송과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고급 부동산 전문 개발사 화양년(花樣年·Fantasia)이 전날 만기가 도래한 2억600만달러(약 2428억원) 규모의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상반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화양년의 총부채 규모는 128억달러(약 15조2000억원)로, 형다의 3000억달러에 비교하면 작은 편이다.

하지만 개발사들의 연이은 채권 미상환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싸늘해지면서 이날 일부 중국 부동산주가 10% 이상 급락하고 부동산 개발회사 채권의 수익률이 약 10년 만

의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의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채권 가격 하락) 이들 회사가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커지게 된다.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사의 등급 하향 조정도 이어지고 있다.

피치는 화양년이 채권 미상환을 발표하기 전 이 회사의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낮췄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또 다른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신리(新力)에 대해 심각한 유동성 문제에 봉착했고 부채상환 능력이 거의 고갈됐다고 신용등급을 'CCC+'에서 'CC'로 내렸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해 형다 위기가 중국 경제성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

/연합뉴스

보해양조 광주 문화예술인 지원 나선다

소극장협회 광주지회와 협약
소극장축제 홍보·물품 지원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에 나선다.

보해양조는 6일 광주시 동구 공동 '예린소극장'에서 한국소극장협회 광주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광주 소극장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기로 했다. <사진>

이를 위해 보해양조는 광주 소극장축제 홍보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공연 출연진과 관람객들을 위한 물품 지원도 나설 예정이다.

올해 24번째 열리는 광주 소극장축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광주 소재 9개 극장에서 진행된다. 광주시 서구 '기본좋은극장'을 비롯해 극단예린소극장, 광주아트홀, 예술극장 통, 씨어터 연바람, 공연일번지, 문예정터, 민들레소극장, 지니아트홀 등 300석 이하의 소극장에서 열린다.

보해양조는 2017년부터 기본좋은극장에 물품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기업으로서



광주에서 활동 중인 연극인들을 응원하고, 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지켜 내기 위해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는 광주 소극장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연극 발전을 위해 지역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KDN 노·사 참석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한전KDN은 안전경영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인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전KDN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심의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권오득 한전KDN ICT본부장이 맡으며, 협의체에는 한전KDN 노동조합과 안전·보건 관련 사외 전문가, 협력사 임직원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 첫 회의에는 노·사 대표 등 총 9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위촉식과 안전경영위원

회 운영기준 제정에 관한 심의 등이 진행됐다.

한전KDN 안전경영위원회는 앞으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권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기업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기에 안전 문화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외부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는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어린이 11명, 11명 모두 부모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어린이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한국손해보험
MG손해보험
Hyundai
삼성화재
한화재일
KC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50손해보험
AIG
한신손해보험
NH손해보험
KOREAN
Corro